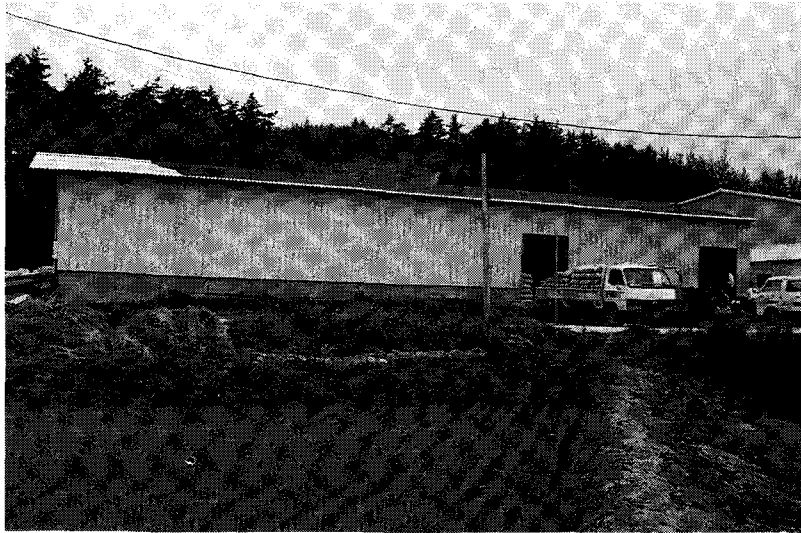


TMR 생산현장을 가다 ⑥/전남 고흥 북부 TMR

# 국내 최초로 TMR 공장 건립한 전남 고흥북부 TMR



전남 고흥북부 낙우회 TMR공장의 전경. 지난 3월 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전소되어 신축한 공장이다.

## ○90년에 15명의 회원으로 TMR 시작

1990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낙우회에서 회원들에게 출자를 받아 TMR을 시작한 곳이 이곳 전남 고흥군 동강면 노동리에 있는 고흥북부낙우회(회장: 박형수, 수경목장)에서 운영하는 TMR공장이다.

이때 같이 TMR 생산을 시작한 곳이 충남의 영일 TMR 밖에 없어 사전 지식을 얻기란 거의 불가능했으며 그당시 TMR공장 설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신민수 고흥북부낙우회 당시 총무였다.

신민수 총무는 현재 전남동부낙협의 조합장에 재임 중이다. 시작당시 출자금액은 일인당 30만원이었으며

공장운영부터는 기본 출자금액이 100~150만원으로 늘어났다.

연 혁

- 1990년 1월 25일 창립 총회
- 1990년 2월 20일 부지매입 (110평)
- 1990년 2월 28일 건물착공
- 1990년 5월 19일 준공 (건평100평)
- 1994년 3월 12일 화재전소
- 1994년 3월 20일 개축 착공
- 1994년 5월 2일 준 공

TMR 공장 설립 동기는 89년 우유과동을 겪으면서 파연 우리낙농의 원가절감 방안이 무엇인가를 숙의한 결과 TMR이 그 대안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장 건립을 결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초기에는 회원중에서도 일부인 10여명만 TMR을 급여했으며 많은 회원이 무관심을 나타내 어렵게 꾸려왔다.

지금은 30여명의 회원이 급여하고 있고 월 250톤을 생산하고 이 TMR사료로 사양되는 소두수도 착유우 320두, 육성우 290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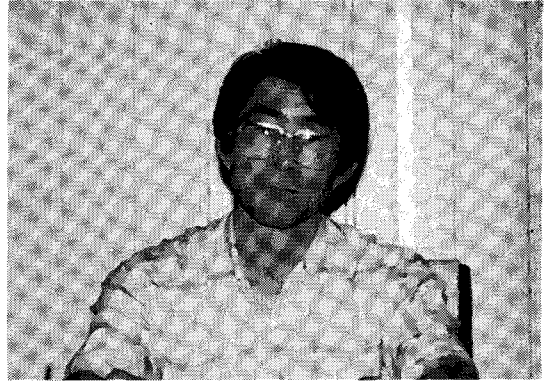
초창기의 어려움중에 하나는 TMR의 사양급여관리가 군별관리이나 이를 무시하고(대부분 계류식우사에서 나타나는 우사구조의 문제로 군별 사양관리가 불가능) 사육하다 보니 생산량에 따라 사료급여량이 조정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해 과비가 나타나게 되고 이로 인해 번식장애가 곳곳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현재 생산중인 품목은 건식용 착유 20kg, 25kg용, 30kg용, 큰송아지용이 생산되고 있다.

장유박등 산업폐기물 재활용

초창기 사양관리의 문제점들은 사료급여 형태를 변화시키는등 몇가지지를 고쳐 개선되었다.

TMR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TMR이 제성과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사양가들의 조사료 급여량이 일정수준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교육했다.

또한 불균형한(생산량에 대비한 TMR급여량) 급



박형수 전남고흥북부낙우회장



인근 순창고추장 공장에서 나온 장유박. 사료적 기호성이 좋아 첨가했을 때와 안했을때 차이가 크다. 이외에도 산업폐기물성 부산물을 이용할 종류는 많으나 중간업자의 농간으로 사용이 어렵다.

여 문제는 TMR급여전에 뒤틀림을 급이시키고 그 다음에 TMR을 주어 생산량이 적은 개체의 과다급여를 막았다.

TMR사료도 습식사료에서 건식사료로 생산형태를 바꿔 습식사료가 기호성이 좋으나 만족감이 적어 많이 먹는 폐단을 건식사료로 바꿔 이를 방지했다. 대부분의 원료는 동부 낙협에서 구매해 주고 있어 원료구매에 별 어려움은 없다.

고흥북부 TMR회에서는 인근 순창고추장 공장에서 고추장을 만들고 나오는 폐기물인 장유박을 공급받아(운송비만 부담) TMR에 이용하고 있으며 사료적 가치는 좋다고 특히 기호성이 높은 편이라고 한다. 장유박이 들어가지 않으면 섭취량이 줄어든다고

한다.

특히 인근지역에 음료 대기업체에 꾀과 포도, 사과 등을 껍데기를 제거해 공급해 주는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의 부산물(폐기물)을 TMR사료로 이용해 보려고 했는데 이를 공급받는 중간업자가 있어 턱없이 고가로 유통시키고 있어 관련기관에서 이를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교통정리를 해주면 사료원가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동석한 신민수 조합장은 말한다.

공장기계 현황

- 믹서기1대 2톤
- 보조탱크 1대 2톤
- 자동 계량기 1대

가공공장의 꾀, 포도, 사과등 부산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초기에 실패한 후 이곳 지도자들은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사료원료가 바뀌거나 배합비 프로그램이 변경될 때마다 농가지도에 나섰다.

특히 조사료급여를 강조해 TMR를 급여하면서 조사료 생산을 포기한다든지 급여량을 줄이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사양지도를 하고 있다. TMR을 급여하면서도 조사료위주 사양관리가 되도록 강조하고 있다. 조사료원으로는 주로 알팔파 큐브, 비트 펄프, 벧짚등이며 앞으로는 좀 비싸지만 알팔파 베일도 육성우부터 급여를 권하겠다고 한다.

이 TMR사료를 급여하고 있는 회원 송래규씨(58세, 신촌목장)는 TMR과 목장운영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TMR급여로 일손을 덜었고, 벧짚 급여를 줄일 수 있었고, 초지가 없는 환경에서 적정규모화가 가능했습니다. 문제는 좀 더 구체적인 군별사양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TMR의 본래의 의미대로 조사료부분도 완벽한 보완이 있었으면 바랄게 없습니다. 지금은 TMR을 적당하게 자른 벧짚과 섞어서 주고 있으며 다른데서 문제되고 있는 번식문제는 약 5년간 TMR을 먹여봤지만 별로 접해보지 못했으며 가끔 나타나는 재발정문제는 발정이 온날 오후 3시와 익일 아



완성된 건식 TMR사료. 25kg 단위로 포장되어 있다.



배합기. 우측 포장장치에 보조탱크가 부착되어 있다.

침에 두번 수정시킵니다.

일본의 경우 3대(代)째 낙농을 하므로 성공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 목장도 현재 순천대학교 축산학과 3학년(복학생) 재학중인 아들에게 대를 잇게 해 성공한 낙농가로 만들계획입니다.”

박형수회장은 “TMR이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차원에서 시작되었고 이는 현재 우리의 사양여건상 그의 대안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법도 만들어 놓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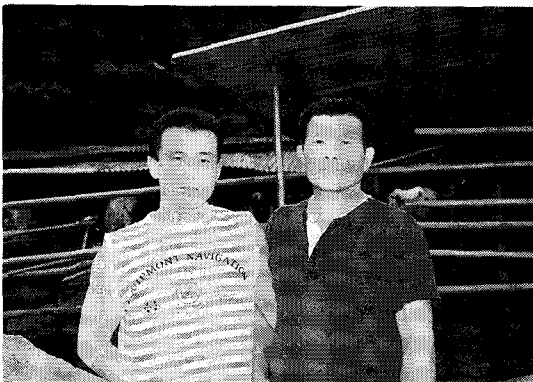
우리 낙농가의 대부분이 자급자족할 사료포가 없는 상황에서 TMR은 이런 낙농가에게 목장운영을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며 이는 상당부분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TMR 사양농가들이 현 상태에서 TMR이 없으면 목장운영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현재 TMR이 완전한 TMR은 아니지만 그런데도 육구충족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볏짚과 TMR사료가 섞여 있는 상태. 볏짚을 일정간격으로 썰어 TMR사료와 같이 급여한다.



국내 최초로 TMR공장을 건립하는데 산파역을 한 신민수 당시 낙우회총무(현전남동부낙협 조합장) 송용차대신 직접 6인승 포터를 몰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조합원의 신망과 모범을 보이고 있다.



TMR사료를 급여하고 있는 신촌목장의 송래규씨와 이 목장의 대(代)를 이를 장남 송홍렬(25세)군. 송군은 현재 순천대학교 축산학과 3학년에 재학중이다. 아버지의 얼굴에서 강인함이 엿보인다.

### 착유 30kg용 TMR 배합비

품명	무	계
단백피	4.3	
옥세실	2.902	
옥피	2.902	
소맥피	1.161	
알팔파(큐브)	1.29	
맥주박	1.075	
비트펠프	0.645	
면실	2.58	
장유박	0.86	
비타민	0.129	
버퍼밀크	0.215	
소금(천일염)	0.065	
면실박	1.72	
석회석	0.151	
루핀피	1.075	
맥강	0.43	

전반적인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면 정부도 개선안을 마련해 지원 및 농가지도에 나서야할 것입니다.”라며 약간 격양된 어조로 논리를 전개한다.

### 조사료 생산의지 높여야

우리는 TMR을 급여하면서 조사료 생산의지가 많이 저하되어 있다. 이는 본래 TMR의 목적과 취지에 전적으로 벗어난 것이다. TMR이 이땅에 보급되는데 큰 매력을 갖게 한 것은 농산 부산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TMR이 보급된지 5년도 안된 현재 우리 TMR 사용농가의 조사료 생산은 유대에서 조사료구입 공제비용이 늘어감에 따라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TMR 본래의 목적을 찾아야 하겠다.

(취재 : 김대환)